

농지 현황 상시조사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농어촌공사 나주 본사서 현판 제막식...광주·전남 전국 최대 9명 배치 전국 농지 90% 관리 사각지대 방지...농지 체계적 관리로 투기 방지 최근 5년 전남농지 축구장 1600개 크기 1144ha 농업법인에 넘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은행관리원이 신설돼 18일 업무를 시작한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농지가 분포한 광주·전남에는 9개도(道) 가운데 최다 조사인력인 9명이 배치된다.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설 농지은행관리원이 18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이날 오전 나주 본사에서 현판 제막식을 열고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설된 농지은행관리원은 지난해 3월 마련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의 하나이다. 올해 예산으로는 48억원이 배정됐다.

개정 농지법과 농어촌공사법에 기반을 둔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1차 3부)을 갖췄으며, 전문인력 87명으로 이뤄졌다. 나주 본사 30명과 전남·경북 각 9명, 경기 8명, 충남·경남·전북 각 7명, 충북 5명, 강원 4명, 제주 1명 등이 지역본부에 배치된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의 취득, 소유, 이용, 전용 현황을 상시 조사하고 분석하는 등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간 26만ha 규모 농지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전체 193만ha 가운데 167만ha에 달하는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지난 2019년 기준 전남 농지면적은 전체의 16.7%를 차지하는 32만2381ha로 집계됐다. 이

는 17 시·도 가운데 가장 넓은 규모로, 광주 농지면적(1만1650ha)과 더하면 17.3% 비중을 나타냈다.

농지은행관리원은 앞으로 토지대장, 농지대장, 농지은행정보 등 각종 정책 DB(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농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렇게 도출된 정보를 토대로 전국 농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한다. 관외거주자, 농업법인, 상속농지 등의 취득·소유현황과 경영 형태에 관한 통계를 제작해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농업진흥지역과 유휴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시행한다. 2020년 기준 전국 농업진흥지역은 98만7000ha로, 이 가운데 농지는 78.8%에 해당하는 77만8000ha였다.

아울러 청년농에서 은퇴농까지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춰 농지를 지원하는 농지은행 사업의 역할도 강화한다. 상·하반기를 나눠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지제도과 최신 판례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도 펼친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7년 1월-2021년 8월) 전남지역 농지를 취득한 농업법인은 1316개사에 달한다. 이들 농업법인은 5591건, 1144ha에 달하는 농지를 거둬들였다. 7140㎡ 규모 축구장 1600개가 들어서는 규모다. 농업법인 1곳당 4.2건씩 전남 농지를 사들인 셈이다.

이 기간 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지를 취득한 농업법인 A(유)는 5년 동안 해남과 경기 평택 등지에서 총 257건, 51ha 규모 농지를 취득했다. 이는 축구장 72개 정도 크다.

법인 C(주)는 신안에서만 축구장 112개 규모에 달하는 80ha(165건) 농지를 사들였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을 계기로 농지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해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만 60세 이상 농업인도 농지연금 가입 가능

오늘부터...65세서 하향 조정

18일부터 만 60세 이상 농업인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세 시행령이 발효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연금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만 60세 이상~65세 미만 농업인 약 800명이 신규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영이양형 상품 내용도 개선돼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은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경영이양형 상품은 연금 지급기간이 만료될 때 담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그동안 이 상품 가입자가 지급기간 중에 사망하면 연금이 해지돼 그동안 수령했던 연금을 상속자가 상환하거나 현금 상황이 어려울 경우 담보 농지를 임의 경매처리하게 돼 농지은행이 농지를 확보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우량 농지를 매입해 청년농·귀농·일반농에게 지원한다는 당초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금 지급기간 중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공사에 담보 농지를 매도해야 한다.

이번 농지연금 제도개선은 농지연금 사업이 1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그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더욱 개선하기 위한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됐다. 지난달 1일부터는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 대상 우대상품이 도입됐고, 기존 가입자가 상품을 변경하거나 중도 상환하는 것도 허용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푸드에비뉴' 개관 1주년 특별행사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지하 1층 '푸드에비뉴'가 1주년을 맞아 18~20일 사흘 간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1월 새단장한 '푸드에비뉴'는 백화점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전남도 로컬푸드 전문관'을 도입했다.

지역 맛집을 늘리고 고급 상품군을 확대한 덕분에 푸드에비뉴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34.7% 증가했다.

롯데백화점은 19~20일 정육 모든 품목을 50% 할인 판매한다. 음식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커피 또는 간식을 증정하는 행사도 벌인다.

건강 매장에서는 루테인, 오메가3, 단백질 등 건강기능식품을 30~40% 저렴한 가격에 내놓는다.

행사장에서는 닭강정과 김치전, 육전 등을 맛볼 수 있는 '추억의 인기 먹거리전'이 열린다. '입맛 돋우는 바다내음 밥상 대전'에서는 전복과 산낙지, 문어 등의 신선한 수산물을 내놓는다.

한복양 롯데백화점 광주점 식품팀장은 “푸드에비뉴 오픈 1주년을 맞아 다양한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대표 식품매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17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이 지하 1층 푸드에비뉴에서 '1주년 특별 행사'에서 반값에 내놓는 한우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국내 위치정보산업 기업 81.8% 수도권에 몰려

지난해 국내 위치정보산업 기업 81.8%가 수도권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신고된 1957개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 산업 매출액 규모가 2조627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인터넷진흥원이 조사를 벌인 응답기업은 모두 417개사로, 81.8%(341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위치정보산업 기업이 가장 많은 지역은 61.9%(258개)를 차지한 서울이었다. 경기 17.7%(74개), 부산 3.8%(16개)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1.2%(5개), 0.7%(3개) 비중이 그쳤다.

전년 발인 조사에서도 광주와 전남 비중은 각각 1.2%(5개), 0.5%(2개)에 불과했다.

한편 국내 위치정보 산업의 한 해 매출액 규모가 2조6000억원에 달한 가운데 부문별 매출액 규모는 '대인·대물 위치추적 및 관제 서비스'가 1조 772억원(4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4911억원(18.7%), '광고 마케팅 및 상거래 서비스' 4115억원(15.7%) 순으로 매출이 컸다. 사업자들은 올해 국내 위치정보 산업 매출이 전년보다 16.3% 늘어난 3조5500억원일 것으로 전망했다.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과제로는 '공공 인프라 및 공공 데이터 민간 개방'을 꼽은 사업자가 41.2%로 가장 많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상의 24일 임직원 대상 개정세법 법인세 실무 교육

광주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체 임직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오는 24일 '기초부터 개정세법까지 법인세 관리 실무 교육'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음 달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 회계 담당자의 법인세 신고 및 관리 업무 처리 능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2022년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주요 개정사항 ▲법인세 계산구조 ▲법인세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이익 및 손금의 기초개념 ▲주요 이익 및 손금 사항 ▲법인세 증빙 업무 등 법인세 신고 업무의 이론 및 실무 주요 사례다. 교육은 당일 약 7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세준 세무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이며, 수강생은 교육 교재와 수료증 및 당일 무료 주차가 제공된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신청 관련 문의는 광주상의홈페이지(www.gjcci.or.kr)를 참고하거나 회원사업본부 전화(062-350-5884)로 하면 된다.

한편, 오는 3월에는 인사노무 관리 실무, 유형별 지출증빙 관리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실무 총 2개 실무교육과정이 개최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